



“아름다운 자연 함께 지켜요” 28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 자연학습장을 찾은 광주 대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생태 해설사와 함께 목재탐방로를 걸으며 수변습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서구청, 상무 금요일시장 오늘부터 폐쇄...배경은

기업형 노점상 상권 싹쓸이... 시민 불편 극심

화물 트럭 이용·인도에 좌판...보행자·차량 소통 방해 적발시 기업형은 과태료·생계형은 상무시민공원 이전 상인회, 전국 조직과 공동 대응 방침...서구와 마찰 예고

광주 상무금요일시장이 전면 폐쇄된다. 광주 서구청은 29일부터 상무금요일시장에 노점을 열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4개월여간 상인들에게 노점 상행위의 불법성과 보도·차도 점용으로 생기는 시민 불편을 알렸는데도 몰려서지 않자 단속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200여명의 노점상인들은 구청의 노점 폐쇄에 반발,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함께 맞서기로 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상무금요일시장 강력단속, 왜? = 서구가 금요일마다 상무지구 한복판에서 열리는 노점시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 피해가 막심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점상은 약자'라는 인식에 기대어 기

업형 노점이 상권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골 장터 노인들이 바구니 한 두 개에 물건을 담아와 쪼그려앉아 파는 것과 달리 화물 트럭을 이용해 물건을 잔뜩 싣고 와 장사를 하거나 인도에 천막을 펴놓고 좌판을 벌여 막대한 수입을 쟁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의 통행 지장, 차량 소통 방해, 도심 미관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0여명의 상인들이 과일, 곡물, 채소, 튀김, 의복·신발, 생선, 공구 등 수십 가지의 물건을 취급하면서 광주 최고의 상권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서구는 29일부터 차량과 천막을 이용해 장사하는 이른바 기업형 노점상인에 대해

점용면적 1㎡당 10만원(1인당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에 돌입하고, 다음달 6일(금)부터는 상무금요일시장을 완전히 폐쇄할 방침이다. 다만, 서구는 관내 주민으로서 구청에 신고를 한 생계형 노점 상인에 대해서는 인근 상무시민공원에서 장사를 이어가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노점상 "몰려서지 않겠다"...마찰 예고 = 상무금요일시장 노점상인들은 서구가 과태료 부과를 무기로 이곳에서 20년 이상 터잡아 장사하는 상인들을 때로 몰아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무지구에 대형 마트 등 유통시설이 들어서기 전 노점상인과 주민들 공동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데다 시민 호응이 이어져 하나의 전통시장 형식으로 자리 잡은 시장을 일순간에 폐쇄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은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29일 오전부터 상무지구 BYC 빌딩 주변 인도에서 수년간 해오던 대로 좌판을 펴기로 했다. 구청 측이 장사도구 등을 압수하는

등 대집행에 나서면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노련 등 전국단위 노점상 조직과 공동으로 맞서기로 하면서 단속에 나서는 서구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실제 전노련 측은 최근 광주서부경찰을 찾아 상무금요일시장 일원과 서구청 등 6군데 지점에서 1개월간 집회를 연다고 신고하는 등 구청의 단속에 맞설 준비를 갖췄다.

상무금요일시장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좌판 규모를 줄이고 주변 정화를 수시로 하고 천막색깔도 통일하는 등 시민 불편해소에 적극 협조한다고 해도 구청은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반면 서구는 "단속에 앞서 6개월 이상 홍보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250여명의 노점상 가운데 진짜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영세 노점상은 30명도 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 기업형 노점상인들로 '노점상은 약자'라는 인식에 기대어 주변 점포상인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중간에서의 타협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외국 방문객에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주세요”

광주시 홈스테이 제공 호스트 800가구 확대 모집

광주시는 외국인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할 호스트 가정을 확대 모집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2016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개막 등으로 광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숙박문제 해소를 위해서

다.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는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 1200여 가정이 등록돼 있다. 2000여 가정을 목표로 확대모집한다. 그동안 82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홈스테이를 이용했다.

신청 자격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고 인종, 종교, 문화적 편견이 없는 시민이다. 손님용 개인방과 욕실, 조식을 제공할 수 있고 가족 중 한 명이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면 된다.

홈스테이 참여 가정에는 하루 기준(조식 포함) 봉사료로 1인당 3만원을 지원 받고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실적 적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홈스테이를 처음 하는 호스트 가정을 위한 국제 매너, 외국어, 세계문화 이해 교육, 남도 역사문화 탐방, 홈스테이 현장실습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홈스테이 참여 희망 가정은 광주 홈스테이 홈페이지(www.gwangjuhomes-tay.or.kr)나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3)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4 달뜨기 00:23
해질녘 19:17 달지기 11:03

새벽 안개 주의
대체로 맑지만 새벽에 안개가 끼겠다.

광주	맑음	10/23	보성	맑음	8/22
목포	맑음	10/19	순천	맑음	11/22
여수	맑음	13/19	영광	맑음	7/20
나주	맑음	7/23	진도	맑음	8/20
완도	맑음	10/22	진주	맑음	8/23
구례	맑음	7/24	군산	맑음	8/20
강진	맑음	7/21	남원	맑음	7/23
해남	맑음	7/21	홍산도	맑음	11/17
장성	맑음	7/23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북	0.5~1.5	북서	북	0.5~1.0
남부	남서	북	1.0~2.0	북서	북	0.5~1.5
남해	남서	북	0.5~1.5	북서	북	0.5~1.0
서부	남서	북	1.0~2.0	북서	북	1.0~1.5
면바다(서)	남서	북	1.5~2.0	북서	북	1.0~1.5

목포	밀물		썰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여수	06:33	18:42	11:52	23:57
	01:07	13:26	07:31	19:24

30(토)	5/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	☀	☁	☁	☀	☀	☁
11/25	12/27	13/23	14/19	11/23	12/24	12/24

‘고려인들의 광주 이야기’ 9월 첫 전파

‘고려FM’ 개국 준비...하루 6시간 공동체 소식 전해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제작한 라디오 방송이 오는 9월 첫 전파를 탄다. (사)고려인마을은 고려인들의 일상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미니 FM 라디오 ‘고려FM’을 광주문화재단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올 9월부터 송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려인마을은 다음달부터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종합지원센터 내에 방송실비를 구축하는 등 개국 준비에 나선다.

프로그램은 러시아어와 우리말을 통해 제작되며, 공동체 소식과 일자리 소식 등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소식이 담길다.

라디오 방송 청취권역은 고려인마을이 위치한 월곡동과 산정동, 우산동, 하남동, 신가동 등으로 방송국(월곡동) 기준 2km 반경이다. ‘고려FM’은 중앙아시아

아 출신국가에서 아나운서와 PD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고려인들이 참여한다. 일자리 소식 등 뉴스 뿐만 아니라 낯선 조상의 땅을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어려움을 녹여주며 새롭게 살아갈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하루 6시간 이상 들려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3개월간 시험방송을 거친 후 내년부터는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해 정규방송으로 송출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나운서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고려인 김에브게니(38)씨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와 동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송을 한다는 것이 꿈만 같다”며 “고단한 삶을 살며 잃어버린 꿈을 고려FM을 통해 다시 한번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타요버스’ 영암 F1 경주장 달린다

5월 5일~12일 까지 ‘타요버스 서킷 사파리 체험’ 프로그램은 F1 경주장에서 진행된다. 28일 밝혔다. 5월 5~7일에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시30분에, 9~12일에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운행된다. 일요일인 8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변지유 패션

50~80%

신상품 30%

신사옥 이전 기념세일 | 4월 30일까지

변지유 패션 ☎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

